

2024 \* No.48  
September+Octo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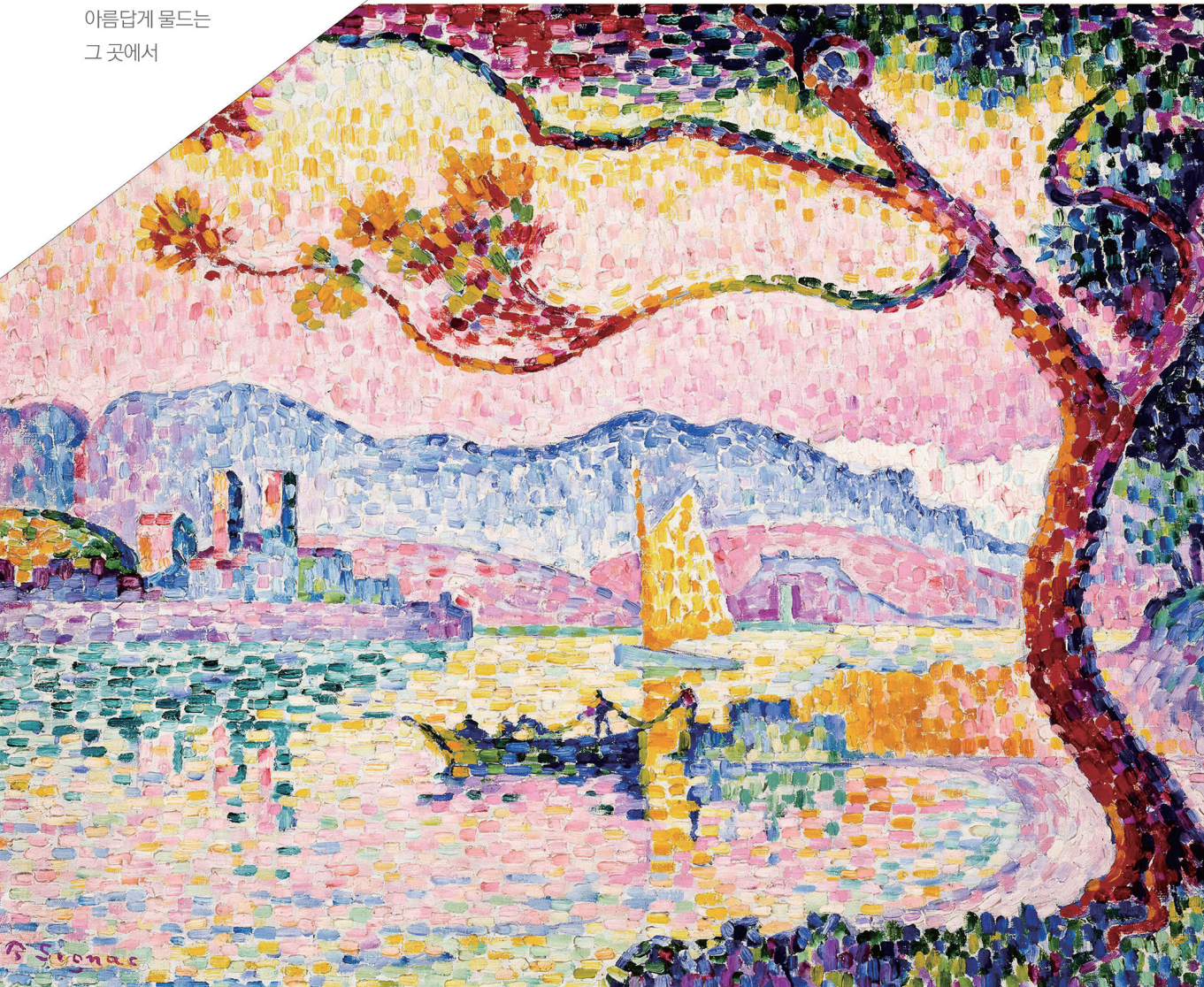
향긋한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www.dongsuh.co.kr](http://www.dongsuh.co.kr)

—  
독자정보 변경과 구독 중지는 웹진과 독자 엽서,  
전화를 통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독자 엽서를 참고해 주세요.

사람과사람, 함께하는

# 삶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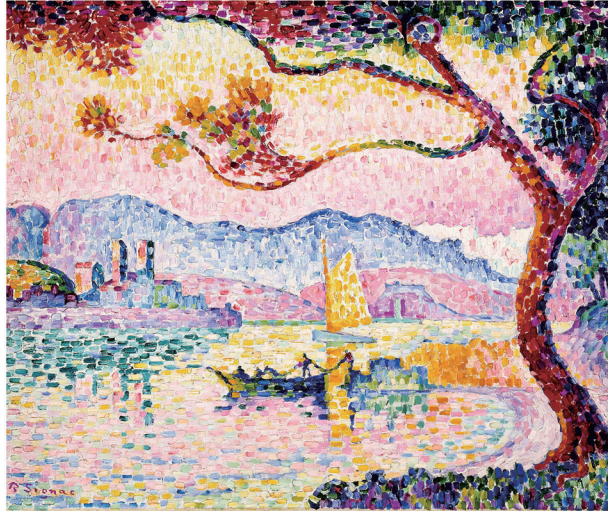
황혼이  
아름답게 물드는  
그 곳에서



©폴 시낙\_〈앙티브, 베이컨의 작은 항구〉



Cover Story



앙티브, 베이컨의 작은 항구\_폴 시낙  
[Paul Signac, 1863~1935]  
1917년작 | 54.5cm x 64cm | 유채, 캔버스

바다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폴 시낙은 프랑스의 매력적인 항구 풍경을 자주 그렸습니다.  
그림은 앙티브 구시가지의 성벽과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조화를 이룹니다.  
폴 시낙은 촘촘한 붓놀림보다는 과감한 스타일의 터치로 멋진 색채를 구현해 냈습니다.  
그는 조르주 쇠라와 함께 점묘법을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점묘법은 점을 찍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캔버스가 아닌 관람자의 눈에서 색이 섞이도록 하는 독특한 화법입니다.  
멋진 자태의 소나무와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은 고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이 그림을 그린 시기가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때라고 합니다.  
평화로운 이 그림을 통해 화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 # CONTENTS

- |    |           |                                   |
|----|-----------|-----------------------------------|
| 04 | 향기로운 시간   | 당신의 시간에 풍요가 깃들기를                  |
| 06 | 차 한 잔의 향기 | 나뭇잎 스탬프 작가 한수정                    |
| 10 | 문학의 향기    | 대숲에서 듣다                           |
| 14 | 길 위의 시간   | 낭만에서 시작해 낭만으로 끝나는 도시<br>포르투, 포르투갈 |
| 20 | 올댓 커피     | 쿠바의 독특한 커피 문화                     |
| 24 | 한국의 재발견   | 한가위 세시풍속과 명절 음식                   |
| 28 | 클래식 산책    | 구스타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천재 예술가         |
| 32 | 도시를 걷다    | 단양팔경부터 외전까지                       |
| 36 | 친절한 고전    |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향한다, 파우스트             |
| 38 | 우리집 식물원   | 정원을 집 안으로, 그라스류 키우기               |
| 40 | 일상의 향기    | 마음만은 넉넉하게, 풍요                     |
| 44 | 행복 레시피    | 무 고로케<br>& 가을 밤 카페라떼              |
| 46 | 동서 뉴스     | 동서식품의 다양한 소식                      |
| 48 | 삶의 향기 뉴스  | 독자 추천 도서와 엽서 분석                   |
| 50 | 게시판       | 독자 의견 및 퀴즈                        |
| 51 | 브랜드 스토리   | 동서식품 제품 이야기                       |

통 권 제 48호  
발행일 2024년 9월 1일 발행 (격월간·비매물)  
등록일 2016년 10월 7일  
등록번호 마 00005  
발행인 김광수  
발행처 동서식품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55  
홈페이지 [www.dongsuh.co.kr](http://www.dongsuh.co.kr)  
편집·디자인 케이아트만(주) (02)511-7053  
인쇄 신영 (02)2275-1600

구독 관련 문의\_편집실: 02-511-7053

사람과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Vol. 48 2024.09+10



## 당신의 시간에 풍요가 깃들기를

나무는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일 년 중 가장 화려한 무대를 펼쳐 보입니다.  
노랗게 물든 머리는 가을별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나무의 시간은 꾸준하고  
정직합니다. 굳은 비바람도, 내리쬐는 띄약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충실하게  
해낸 결과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도 빛나는 순간은 있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소중하게, 당신의 시간에 풍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식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 나뭇잎 스탬프 작가 한수정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식물에 마음을 내주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식물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  
을 가져야 한다.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  
나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 나무를 알아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세상 모든 게 신비롭게 보일 때가 있었다. 물음병에 걸려 부모님을  
귀찮게 할 땐 삶은 재미있는 일만 가득할 것 같았지만,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  
다. 매일 새로운 것, 다른 것, 자극적인 것만 찾아서 시간을 보냈다. 우리 곁에 있  
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무를 키우는 일을 하셨어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시절에 아버지 농장에 가서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  
어요. 하루 종일 녹색의 식물을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때부터 미술과  
식물을 접목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예과를 졸업한 한수정 작가는 도자기 화분을 만들기도 하고, 실내 조경 관련  
일을 배우면서 미술과 식물의 접점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영국 SBA(Society  
of Botanical Artists)의 세밀화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면서 식물의 생김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그러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식물  
을 미술작업으로서 그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외국  
작가와 소통하며 그들의 그림을 보면서 공부했다.

“춘천에 거주할 때였어요. 식물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  
이들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강원도립화목원을 매일 찾아갔어요. 그곳에 있는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세밀화를  
그리려면 식물을 채취하기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무작정 사  
무실에 찾아가 제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림을 모두 다 사용해도 좋으  
니,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운이 좋았는지, 담당자가 협력  
작가 체결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는 2년간 화목원에 있는 나무와 식물에 대해 배우고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물에 대한 깊은 탐구와 사랑은 작가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 나뭇잎 스탬프 작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면서 식물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림을 벽에만 걸어 두고 보는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가까이에서 식물이 주는 즐거움을 만지고 느껴볼 수 있게 하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외국에 스탬프를 만들고 활용하는 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접했는데, 이거다 싶었죠.” 그는 화목원에 있는 나무 63종을 스케치해서 스탬프를 제작했다. 스탬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나뭇잎의 생김새에 취해 작업하는 내내 즐거웠다. 스탬프를 완성하고 사람들과 무엇을 하면 좋을지 찾던 중, 한 식물원에서 사람들과 만나 함께 스탬프를 찍을 기회를 얻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뭇잎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놀라고, 다양한 형태가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과 스탬프를 찍으면서 그들이 흥미로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였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강원도 교육청 마을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수업도 했는데, 앞으

로 더 즐거운 주제로 아이들과 만나고 싶어요.” 한수정 작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저 앞만 보고 살아가기에는 아름다운 존재가 손 내밀면 달을 거리에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어서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스탬프를 만들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기를 바란다. 나뭇잎을 들여다보고, 나무의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자기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 본질,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

어떤 생명체든 자세히, 깊게 들여다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한 시인의 말처럼, 사람의 한 모습만 보고 그를 판단할 수 없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잎이 다 떨어졌다고 쉽게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자세히 보지 않아서다. “보통 식물을 그리면 꽃이 피거나 화려하게 단풍이 들 때, 열매가 한창일 때를 주로 화폭에 담는데요. 저는 그 사이의 시간이 좋더라고요. 꽃이 피기 전이나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되는 과정 사이에 움직임이 있잖아요. 매일 관찰하다 보면, 순간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식물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꽃이 잔뜩 피어서 화려한 순간일 때나, 꽃이 지고 잎이 다 떨어져서 볼품없이 질 때나 그 식물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울 때만 눈길을

주지 말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눈을 가지면 자신의 세상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작가에게 주변 사람들의 공감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그는 최근 인천도서관에서 자신이 쓴 에세이를 독자들과 매일 열 페이지씩 읽어가며 생각을 공유했다. 한때 작가는 심한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심신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식물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었다. 이 과정을 담은 책이라 독자와 함께 읽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독자가 느낀 감정을 직접 듣고 공감을 얻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저는 지식적인 면에서 대단한 식물 전문가는

아니에요. 일반인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죠. 다만 제 고유의 시각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나누고 싶어요. 계속 탐구하고 배우면서 오래도

록 일했으면 해요. 제가 오랜 시간 식물과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듯이, 다른 사람들도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해진다. 나라는 사람이 차곡차곡 쌓은 소중한 자산은 꾸준함에서 비롯될 것이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대단한 성공을 이뤄내지 않더라도, 계속 내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부신 삶일 테니까.

“매일 관찰하다 보면, 순간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식물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문학의 향기>는 매호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자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소설, 에세이 등으로 채워집니다.  
살아있는 감수성과 힘 있는 필력을 가진 작가들이 펼치는 문학의 정수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수 필

## 대숲에서 듣다

글. 이광순 일러스트. 조주홍



대숲에 바람이 왔다. 대나무들이 제 몸을 부대끼며 일제히 생명의 소리를 지른다. 텅 빈 대나무 몸속에 숨어있던 여여(如如)한 시간이 바람을 만나 청량한 초록의 소리를 들려준다. 도시의 건물 사이에서 오가는 바람은 소리가 아닌 소음으로 들려 피하고 싶는데, 대숲에서는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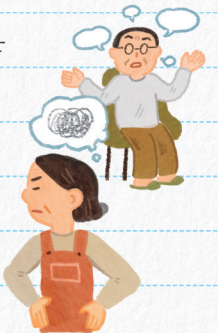
\*

10여 년 전, 직장 동료들과 담양 죽녹원에 간 적이 있었다. 여수 향일암을 보고 1박을 한 다음에 죽녹원을 들른 것이다. 여행하는 동안 내내 그때 일정을 함께하던 룸메이트의 행동이 신경 쓰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불편했다. 죽녹원은 마지막 일정이었다. 어쩌면 대숲을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을 텐데, 두 시간여 대숲을 걷는 동안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이던 날, 흐린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이 대숲을 흔들자 후드득 빗방울을 흩뿌리기도 했다. 그렇게 한바탕 대숲을 흔들고는 다시 하늘로 돌아간 바람, 그리고 바람을 잡지 않고 놓아준 대숲에 남은 정적이 심장을 파고들어 마음마저 고요해지는 듯했다.

송나라 정자(程子)가 '대숲에 바람이 불면 대숲은 무심한 상태로 느껴 반응한다'고 했는데, 대나무처럼 내 가슴속에 날 선 생각이 무심한 상태로 떨어져 나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날 이후 가끔 마음이 어수선했 때면 대숲을 찾게 되었다. 단지 몇 그루라도 대나무가 있으면 습관처럼 그사이에 들어가 댓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대숲을 보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와우정사에 가기도 한다. 대체로 산책 삼아 혼자 가는데 오늘은 남편을 앞세우고 갔다.

\*\*

남편이 퇴직을 하자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일중독으로 살아온 남편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취미도 없어 그저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우울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나의 권유로 악기를 하나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재미없어하고 점점 잔소리만 늘어갔다.





나에게뿐 아니라 식구들에게도 이것저것 채근하며 지적하여 종종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한다. 주말에는 식구들이 모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나누고 있으면, 불쑥 '난 아무래도 혼자 시골집 가서 살아야겠다'고 툭 한마디 던져 훈훈한 집안 분위기를 깨기도 한다. 나도 남편이 퇴직하면 비어 있는 시골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골집은 이곳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이고, 관리해야 할 땅도 있으니 소일거리 삼아 일주일에 이삼일이라도 가 있으면 했던 것이다. 퇴직하면 일부러 전원주택을 지어 시골살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어있는 시골집을 한 번도 가지 않고 뭇가 불만이 생기면 불평의 도구로 꺼내는 것이다.

\*\*\*

남편과 갈등하며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약해진 남편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 빈틈이 없던 사람이 사소한 일을 놓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없이도 한번 간 곳은 정확히 찾아가던 사람이 요즘은 가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한다. 늘 불평만 하여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내 탓도 있었다. 또 남편은 평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아 둘이 전철을 타고 외출하려면 환승구역을 잘못 찾아 내가 앞장서야 할 때도 있다. 그동안은 내 손을 먼저 잡아줘야 할 사람은 남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그를 이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평도 점점 줄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남편의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전에 같으면 '왜 또 저러나?'하고 슬슬 피했을 텐데, 굳이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 한동안 외출도 못 했으니 바람도 쉴 겸 같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오랜만에 대숲에 가고 싶었다. 혼자 가던 곳보다는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고천 쪽에 대나무 숲길이 있었다. 고천의 대숲



은 생각만큼 크진 않았다. 그래도 덤턴 날씨도 모처럼 한풀 꺾여 숲은 절을 만했다.

\*\*\*\*\*

오랜만에 걸어보는 대숲이 좋다. 오늘은 대나무와 바람이 비밀스럽게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듯하다. 죽죽 하늘로 뻗은 굵은 나무 앞에 섰다. 큰 나무답게 중간중간 마디도 아주 실하다. 대나무는 쑥쑥 자라다가 잠깐 이 마디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멈춘다고 한다. 우리 부부도 이 마디 같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하늘의 빛을 받아 초록으로 빛나는 댓잎에 손바닥을 대어 보니 손에 댓잎의 무늬가 충충 박히는 것 같다.

성큼성큼 앞서서 걸어가고 있던 남편을 부른다. 느닷없이 손바닥을 펴보라는 내 주문에 주저하던 그가 손을 폈다. 그 위에 내 손을 포개면서, "댓잎의 무늬가 보여?"하고 물어본다.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몰라 하는 남편에게 대숲에 바람이 들 때 느끼는 감촉을 수다스럽게 이야기한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나의 행동이 훈수 같다고 뿌리쳤을 남편이 오늘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마 대나무의 텅 빈 몸속에 숨어 있던 소리가 그에게도 들렸나 보다.



★작가 PROFILE: 이관순  
제13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수필 동상 수상





# Porto, Portugal

낭만에서 시작해  
낭만으로 끝나는 도시 — 포르투, 포르투갈

유럽 대륙은 거대한 낭만 경연장이다. 취향에 따라 각자의 견해가 다르나 남유럽 쪽에서만큼은 포르투갈 제2의 도시로 의견이 모이는 편이다. 2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포르투'는 여전히 수백 년 된 건물을 잔뜩 품은 채 남유럽의 낭만을 진두지휘한다.

글/사진 태원준 [여행작가]





1. 여행객으로 가득한 상 벤투역, 미술관을 방불케 한다.
2. 포르투갈어로 강변이라는 뜻을 지닌 히베이라의 전경.
3. 히베이라 지구와 도루강 상공에 케이블카가 지나고 있다.
4. 동 루이스 1세 다리 아래 작은 배가 정박해 있다.



## 푸른 빛 아줄레주가 반기는 도시

도시의 낭만은 중앙역 격인 '상 벤투'역에서부터 바로 시작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이란 수식어를 달고 사는 역사 내부엔 포르투갈 고유의 타일 장식 '아줄레주'가 한가득이다. 은은한 푸른 빛을 띠는 이 전통 장식은 포르투갈의 상징으로서 가정집부터 왕궁까지, 국가 전역에서 만날 수 있다. 그중 상 벤투역의 그것은 무려 2만 장에 달하는 타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르투갈의 역사적 사건을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어 최고의 아줄레주로 꼽힌다. 이 역을 통해 포르투에 입성하는 대부분의 여행자가 역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머무는 까닭이다. 황홀한 아줄레주를 통해 포르투갈의 시조인 아폰수 1세와 대항해 시대의 영웅 엔리케 왕자를 차

레차레 만나다 보면 10~20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오로지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 이 기차역을 보고자 포르투로 향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닿는 히베이라 광장에선 설렘이 더욱 빠르게 마음에 들어찬다. 포르투의 터줏대감인 도루강을 따라 이어지는 광장 산책로는 낭만의 정석이다. 세월의 흐름을 머금은 파스텔 톤의 알록달록한 건물이 어깨를 맞댄 채 빼곡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다. 유럽의 로망으로 여겨지는 근사한 노천카페가 줄을 잇는 건 당연하고 여행자를 한껏 더 들뜨게 만드는 버스킹 공연도 늘 펼쳐진다. 강가에 걸터앉아 강 위로 오가는 다양각색의 유람선만 봐도 매 순간이 즐겁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궁금하다면 그저 이 산책로를 여유롭게 오가면 될 듯하다. 여기저기서 설새 없

이 그 의미를 담은 각국의 감탄사가 터져 나오니 말이다. 산책로 끝엔 도시의 대표 얼굴 '동 루이스 1세'가 능글하게 등장한다. 85미터 높이의 압도적인 아치형 2층 철교는 포르투의 구시가와 신시가를 연결한다. 귀여운 트램이 오가는 이 철교의 상층부는 낭만 도시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이며 노을이 멋지기로 유명한 포르투의 일몰 포인트로도 이름을 날린다.

## 도시를 빛내는 역사적인 서점과 카페

어디나 신비한 전설이 숨어있을 법한 오래된 골목길 구석구석에서도 포르투의 낭만은 계속된다. 충동구매를 부채질하는 감성적인 상점과 다정한 연인들이 속삭이는 카페가 교차한다. 그 틈에서 '해리 포터' 마니아들의 성지로 통하

는 '렐루 서점'의 인기는 독보적이다. 130년의 역사를 가진 이곳은 20년 전만 해도 그저 유서 깊은 지역 서점으로 관광객에게 잘 알려진 장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해리 포터의 조물주 조앤 롤링이 작품의 영감을 받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또한 동명의 영화 속 '움직이는 계단'의 실제 모델이 렐루 서점의 붉은 계단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치솟았다. 고풍스럽고 화려한 아르누보 양식의 서점 인테리어가 매력을 뽐내고 스테인드글라스로 치장된 천장은 반짝거린다. 높다란 나무 서가마다 촘촘하게 꽂힌 책도 괜스레 예뻐 보인다. 인기 절정의 붉은 계단은 서점 중앙에서 1층과 2층을 연결한다. 전체적인 모습도 인상적 이거니와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판타지 작품의 무대가 된 곳이니 이제는 방문객이 붐비다 못해 흘러넘친다. 맛집 뽐치는 긴 대기 시간과 8유로



나 되는 입장료, 많은 인파까지 감수해야 함에도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건 펠루 서점이 가진 오랜 역사와 중후한 인테리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낭만삼박자를 이루는 덕일 것이다.

1921년에 개업한 ‘마제스틱 카페’도 포르투 여행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것만으로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창업 당시인 19세기 초반에 시간이 멈춘 듯, 앤티크한 분위기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



1. 작가 조앤 롤링이 판타지 소설 <해리 포터>를 집필한 곳으로 유명한 마제스틱 카페.  
2. 마법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펠루 서점.  
3. 히베이라 지구의 일몰 풍경. 정박한 작은 배는 포트와인을 나르던 배로 지금은 전시용이다.  
4. 포르투갈의 민요라 할 수 있는 ‘파두’ 공연.



테이블과 의자는 물론, 벽면 거울 같은 장식품도 현대의 느낌을 주는 것이 거의 없다. 우아한 정장을 차려입고 바지런히 음료와 샌드위치를 나르는 종업원도 시간 여행의 한 장면이다. 연주자가 등장해 카페 중앙의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를 두드리며 낭만의 순도를 높이기도 한다. 커피를 홀짝이는 현지인도, 온 김에 거하게 식사를 즐기는 외지인도 각자의 방식으로 오래된 커피하우스와 자연스레 사랑에 빠진다. 지금의 사람들에게

게만 국한된 얘기도 아니다.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르투 출신의 많은 예술가가 이곳을 거치며 아이디어를 얻고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앞서 언급한 조앤 롤링 역시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 달콤한 포트와인, 구슬픈 파두

포르투 낭만 여행의 완성은 달콤한 물방울로 끝맺음 된다. 포르투의 특산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포트와인’은 초대형 와인 박람회장이나 다름없는 유럽 대륙 내에서도 긴 시간 뚜렷한 성과를 냈다. 역사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랑스와 전쟁을 하던 영국은 동맹국 포르투갈의 와인을 많이 소비했다. 특히 도루강 주변의 질 좋은 포도로 만든 와인의 인기가 좋았다. 다만 영국으로 수송하기까지 부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 이를 해결하고자 와인에 독한 브랜디를 첨가해 도수를 높인 것이 포트와인의 시작이었다. 발효 중 브랜디를 섞기에 발효를 끝마치지 못한 포도의 당분이 그대로 남아 맛이 달콤하고 부드럽다. 그 덕에 주로 디저트처럼 식후주로 애용되며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동 루이스 1세 다리를 건너면 와이너리가 지천이다. ‘빌라 노바 데 가이아’라 불리는 이 지역엔 산데망(Sandeman), 칼렘(Calem), 크로프트(Croft) 등 지하 저장고를 갖춘 오랜 전통의 와이너리가 20개 넘게 이어진다. 포르투 시내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누구나 쉽게 포트 와인을 접하고 와인 투어를 즐길 수 있다는 말이다. 일부 와이너리에선 와인 시



5. 포트와인 와이너리에 오크통이 정갈하게 쌓여 있다.  
6. 도루강을 배경으로 마시면 낭만이 배가 되는 포트와인.

음회와 파두 공연을 병행한다. 포르투갈의 민요라 할 수 있는 파두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범지구적 무형문화유산이다. 음악과 시가 결합된 형식의 파두는 우리의 창(唱)과도 언뜻 닮았다. 전통 기타 연주를 배경 삼아 구슬픈게 읊조리듯 부르는 파두엔 특유의 한이 가득 서려 있어 한이라면 익숙한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감동을 준다. 다디단 와인 향이 가득한 지하동굴에서 파두 가수의 구성진 노랫가락을 감상하며 포트와인을 음미하는 일. 이는 완벽한 포르투 여행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나 다름없다.

이토록 여행 내내 여행자의 주머니에 낭만을 아낌없이 꽂꽂 담아주는 도시. 대체 이 글을 쓰며 ‘낭만’이란 단어를 얼마나 남발했는지 세어보진 않았으나 어찌란 말인가. 포르투라는 도시가 낭만에서 시작해 낭만으로 끝나는 도시인 것을.





커피로 만나는  
헤밍웨이와 체 게바라

## 쿠바의 독특한 커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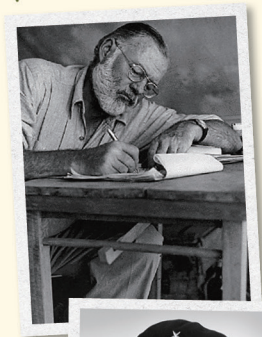
쿠바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미지의 땅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었다. 지리적으로 먼데다 미수교국이라는 점이 신비함마저 느끼게 했다. 이런 쿠바와 우리나라가 드디어 2024년 2월 14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수교를 제안한 것은 우리나라였지만 제안을 받아들이고, 2월 14일이라는 서명 날짜를 고른 것은 쿠바였다. 밸런타인데이를 선택함으로써 두 나라의 우정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쿠바인들의 뜻을 담았다. 두 나라의 우정을 지속시키는데 커피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글. 이길상 [커피인문학자, 교육학박사] 일러스트. 마시

## 커피, 그리고 쿠바를 사랑한 두 남자

쿠바가 동경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두 명의 역사적 인물이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첫 번째 인물은 미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헤밍웨이이다. 그가 오랫동안 쿠바에 체류하며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였다는 것이 주는 환상적 이미지가 남아 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르헨티나 출신 혁명가 체 게바라다. 카스트로를 도와 쿠바의 독립을 이룬 로맨티스트 혁명가 체 게바라의 정취가 남아 있는 나라가 쿠바다. 쿠바를 신비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헤밍웨이와 체 게바라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두 사람 모두 쿠바인이 아니지만 쿠바를 사랑해서 쿠바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무엇보다 더 사랑한 커피다. 이 두 사람은 쿠바에 머무는 동안 쿠바 커피와 늘 함께했다.

Ernest Hemingway [1899~1961]  
미국의 소설가이자 언론인



Ernesto Che Guevara [1928~1967]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가

쿠바에 커피가 심어진 것은 1748년이었다. 호세 안토니오 게라버트가 산토도밍고, 즉, 현재의 도미니카에서 가져온 커피 씨앗을 아바나 근교에 뿌린 것이 쿠바 커피의 시작이었다. 초기에 그다지 융성하지 않던 커피 재배는 18세기 말에 전기를 맞는다. 아이티에서 발발한 노예혁명을 피해 도망 나온 프랑스인들과 아이티인들이 주인공이었다. 투생 루베르튀르가 이끄는 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 아이티는 자바와 함께 세계 커피 생산을 양분하고 있을 정도였다. 노예혁명이 벌어지자 커피 농장을 경영하던 대부분의 백인과 이들을 돕던 아이티인들이 쿠바와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로 이주하였다. 이들이 쿠바로 가져온 커피 재배 기술로 쿠바 커피 산업은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1790년 1년 동안 1만 8,500톤의 커피를 생산하여 스페인 등지로 수출하였다.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 및 수출국이 되었고, 쿠바인들은 커피를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계 커피 생산 시장에서 쿠바의 위력은 1830년대에 저물기 시작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중주국 스페인 경제의 몰락 그리고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커피 생산 경쟁국의 등장이 크게 작용하였다. 18세기 말~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쿠바 남동부 지역의 커피 농장은 아주 독특한 문화적 경관을 창출하였다. 지금도 남아 있는 당시 커피 농장 시설과 고고학적 경관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커피 관련 시설이나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최초의





사례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세기 커피 농장 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쿠바이다. 현재 60개 이상이 잘 보존되고 있다. 커피와 관련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2011년에 콜롬비아 커피 문화 경관이 추가로 지정되어 지구상에 단 두 개뿐이다. 커피나무 원산지 에티오피아나 커피 음료 기원지 예멘에도, 커피 생산의 공룡 브라질에도 없다. 쿠바는 이런 의미에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의 커피 재배 문화를 보존하여 후대에 전해주고 있는 의미 있는 국가다. 비록 커피 생산에서 차지하는 세계적 영향력은 잃었지만, 쿠바의 커피 농업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헤밍웨이가

체류하며 크리스탈 마운틴 커피를 즐겼던 1939년에서 1953년 사이에도, 체 게바라가 쿠바 혁명 전쟁을 이끌던 1956년부터 1959년까지도, 체 게바라가 혁명 성공 후 쿠바에 머물던 1962년까지도 쿠바 커피는 건재하였다. 당시 연 생산량이 44만 자루, 약 2만 6,400톤에 달하였다.

그러나 1962년 미국에 의한 쿠바 봉쇄 이후 쿠바 커피는 세계 커피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1965년 체 게바라가 쿠바를 떠날 즈음, 쿠바 커피는 세상에서 완전히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런 상태는 카스트로가 권좌에서 물러난 2008년까지 40년 이상 이어졌다. 2008년 이후 쿠바 커피는 다시 세상과 마주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커피 유행과 함께 회생을 시작하였지만, 아직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12만 5천 자루를 생산하여 연간 생산량에서 예멘이나 파나마를 앞서고 있지만 수출량이 많지는 않다. 국내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쿠바 밖에서 쿠바 커피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할 땐 언제나 커피

커피 생산국으로서 쿠바가 지니는 위상은 이처럼 쿠바가 겪은 정치적 격랑에 따라 심하게 흔들려 왔다. 그러나 커피 소비국으로서 쿠바가 간직해온 커피 문화는 강렬하고 지속적이다.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국가 중에서 독특한 커피 소비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쿠바다. 쿠바의 커피 문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쿠바 커피 문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홈 카페 문화, 즉 까사 커피 문화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홈 카페 문화가 가장 보편화된 나라가 쿠바일 것이다. 쿠바에서는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접대용 음료로 커피를 내놓는 것이 거의 국룰이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이라고 해도 최소한 하나 정도의 에스프레소용 모카포트는 준비되어 있다.

둘째, 홈 카페 문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쿠바의 오래된 배급 제도다. 쿠바는 사회주의 등장 이후 주요 식료품과 함께 커피 배급을 실시하여 왔다. 한 달에 1인당 100그램 정도의 원두가 가정에 배급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질 좋은 커피가 아니라 함정이 있기는 하다.

셋째, 쿠바 커피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문화다. 뜨겁고, 진하고, 적은 양의 에스프레소, 여기에 설탕을 넣어 만든다. 이들은 에스프레소라고 부르지 않고 ‘카페쿠바노(Café Cubano)’라고 부른다. 세계인들이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작은 잔 데미타세보다 작은 ‘타시타(tacita)’라는 잔을 사용한다. ‘코르타디토(Cortadito)’는 스팀우유를 섞은 카페쿠바노를 의미한다. 우유와 커피의 비율은 다양하다. 큰 머그잔에 커피보다 많은 우유를 넣어 만든 음료는 ‘카페 콘 레쎄(Café con leche)’라고 한다.

넷째, 쿠바 커피 문화의 뿌리는 유럽, 그중에서도 이탈리아다. 19세기 유럽 대륙에서의 끊임없는 전쟁, 때마침 불붙은 중남미 커피 산업의 융성에 맞추어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중남미로 이주 행렬이 이어졌다. 중남미 이민을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이탈리아였고, 스페인과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이탈리아인들이 전파한 이탈리아식 커피 문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곳이 바로 쿠바다.

2012년부터 쿠바 커피의 국내 직수입이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쿠바 커피는 우리 가까이에서 만나기 어렵다. 기다리고 기다린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 커피를 통해 헤밍웨이와 체 게바라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Café Cubano



‘추석’ 대신 ‘한가위’라고 쓰자

\*

## 한가위 세시풍속과 명절 음식



이억영[강강수월래(61.5x45cm), ©국립민속박물관]

우리 겨레의 3대 명절 하면 설, 단오, 한가위를 꼽는다. 그 가운데서도 ‘한가위’는 가장 큰 명절이다. 1819년(순조 19) 김매순(金邁淳)이 지은 한양(漢陽)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에 있는 ‘더도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한가위는 햇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절기로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다.

글. 김영조[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우리문화신문 발행인]

### ♣ 한가위의 유래와 어원

한가위는 음력 팔월 보름날(15일)로 추석, 가배절, 중추절, 가위, 가윗날로도 부른다. 여기서 ‘한가위’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8월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다. 또 ‘가위’라는 말은 신라 때 길쌈놀이(베 짜기)인 ‘가배’에서 유래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오래된 우리 토박이말이다.

“신라 유리왕 9년에 국내 6부의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두 왕녀가 그들을 이끌어 7월 기망(既望: 음력 열셋째 날)부터 길쌈을 해서 8월 보름까지 짜게 하였다. 그리곤 짠 베의 품질과 양을 가늠하여 이기고 짐을 결정하고,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이긴 편을 대접하게 하였다. 이날 달 밝은 밤에 임금과 벼슬아치를 비롯해 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녀와 부녀자들이 밤새도록 ‘강강수월래’와 ‘회소곡(會蘇曲)’을 부르고, 춤을 추며 질탕하고 흥겹게 놀았다.”

한가위의 다른 이름인 ‘중추절(仲秋節)’은 중국에서 가을을 셋으로 나눠 음력 7월을 맹추(孟秋), 8월을 중추(仲秋), 9월을 계추(季秋)라고 불렀는데 그에 따라 8월 보름을 일러 한 말이다. 또 추석이라는 말은 5세기 송나라 학자 배인의 《사기집해(史記集解)》의 ‘추석월(秋夕月)’이란 말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추석월’의 뜻은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었으나 우리의 명절과 잘 맞지 않는 말이고, 더구나 중국사람들조차 이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말뼉(어원)이 우리와 잘 맞지 않는 추석이라는 말을 쓸 게 아니라 우리 겨레가 신라 때부터 써오던 토박이말 ‘한가위’를 써야만 한다.



한가위(그림 이무성 화백)



## ♣ 이웃과 함께하던 정겨운 풍속

한가위에 하는 세시풍속으로는 벌초(伐草), 성묘(省墓), 차례(茶禮), 소놀이, 거북놀이, 강강술래, 원놀이, 가마싸움, 씨름, 반보기, 올게심니, 발고랑 기기가 있다.

그 가운데 ‘거북놀이’는 수수 잎을 따 거북이 등판처럼 엮어 이 것을 등에 메고, 엉금엉금 기어 거북이 흉내를 내는 놀이다. 이 거북이를 앞세우고 “동해 용왕의 아드님 거북이 행차시오!”라고 소리치며, 풍물패와 함께 집집이 방문한다. 대문에서 문굿으로 시작하여 마당, 조왕(부엌), 장독대, 곳간, 마구간, 뒷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들보 밑에서 성주풀이를 한다. 조왕에 가면 “빈 술에다 맹물 붓고 불만 때도 밥이 가득, 밥이 가득!” 마구간에 가면 “새끼를 낳으면 열에 열 마리가 쑥쑥 빠지네!” 하면서 비나리를 한다. 이렇게 집집을 돌 때 주인은 곡식이나 돈을 형편껏, 성의껏 내놓고 이것을 잘 두었다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쓴다.

전라도에서는 ‘올게심니(올벼심리)’라 하여 한가위를 앞두고 잘 익은 벼, 수수, 조 따위 곡식의 이삭을 한 줌 묶어 기둥이나 대문 위에 걸어 두고, 다음 해에 풍년이 들게 해 달라고 비손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때 음식을 차려 이웃과 함께 잔치하기도 한다. 올게심니한 곡식은 다음 해에 씨로 쓰며, 떡을 해서 사당에 바치거나 터주에 올렸다가 먹는다. 또 ‘발고랑 기기’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한가위 전날 저녁에 아이들이 밭에 가서 발가벗고 자기 나이대로 발고랑을 기는 풍속이다. 이때 음식을 마련해서 발독에 놓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발농사도 잘된다고 믿는다.



풍년을 기원하며 수확한 곡식을 이웃과 나누는 세시풍속 ‘올게심니’



대표적 한가위 음식 송편

또한 한가위 세시풍속에 ‘반보기’ 곧 중로상봉(中路相逢)도 있다. 이는 한가위가 지난 다음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때와 장소를 미리 정하고 만나는 것이며, 중도에서 만났으므로 회포를 다 풀지 못하고 반만 풀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마음대로 친정 나들이를 할 수가 없었던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가 중간 지점을 정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만나서 한나절 동안 회포를 푸는 것이다. 이제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역귀성 하여 온 가족이 만나는 ‘온보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반보기’ 풍속은 사라지고 말았다.

## ♣ 정성스러운 명절 음식으로 더 풍성하게

“설에는 옷을 얻어 입고, 한가위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라는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가위는 곡식과 과일 등이 풍성한 때라서 여러 가지 명절 음식이 있다.

《동국세시기》에는 송편, 시루떡, 인절미, 밤단자를 시절 음식으로 꼽았는데, 송편은 대표적인 한가위 음식이다. 송편에는 꿀 송편, 밤 송편, 깨 송편, 콩 송편, 대추 송편 등이 있으며, 이때 솔잎을 깔아 맛뿐 아니라 향과 시각적인 멋도 즐겼다. 솔잎에는 살균물질인 피톤치드(phytoncide)가 다른 식물보다 10배 정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유해성분의 섭취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위장병, 고혈압, 중풍, 신경통, 천식에 좋다고 한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모시 잎을 삶아 넣어 빗깔을 낸 모시 잎 송편, 강원도 지방에서 감자 송편이 있으며, 쑥 송편, 치자 송편, 호박 송편, 사과 송편도 별미다.

‘농가월령가’에는 햅쌀로 빚어서 신도주(新稻酒라고 하는 백주(白酒), 오려 (올벼의 옛말)송편, 박나물(덜 여문 박을 얇게 저며서 쇠고기와 함께 간장에 볶은 뒤에 파, 깨소금, 후춧가루를 치고 주물러서 만든 나물), 토란국을 이때의 시절 음식이라고 했으며, 송잇국, 고지국(호박, 박, 가지, 고구마 따위를 납작납작하거나 잘고 길게 썰어 말린 것을 끓인 국)도 영동 지방에서는 별식으로 먹는다.

이제 ‘더도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즐거운 명절 ‘한가위’다. 하지만, 모두가 풍족한 명절을 보내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밥 먹기도 어려운 사람은 물론, 고국에도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도 있다. 한가위에는 뒷동산에 올라 달을 바라본다는 ‘망월(望月)’ 풍속이 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바라볼 때 그 달은 훨씬 더 크게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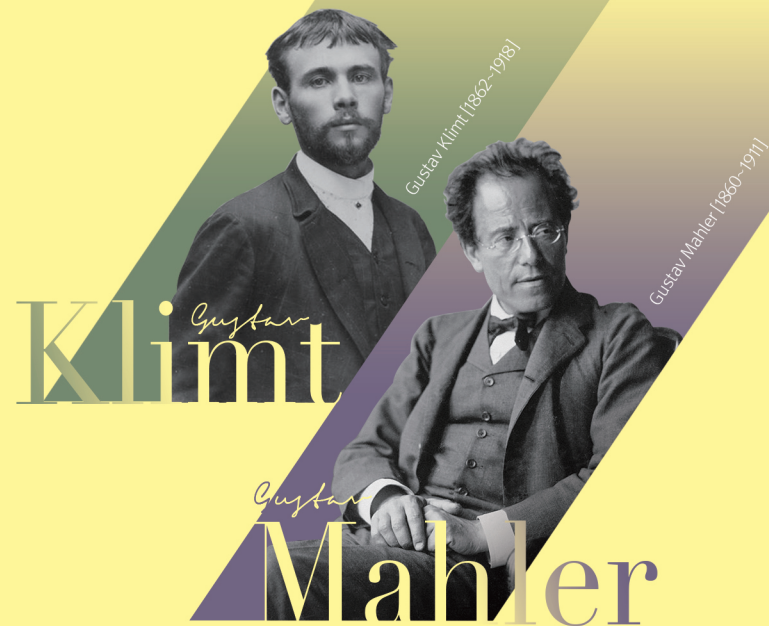


## 구스타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천재 예술가

# 클림트와 말러

오스트리아에 가면 ‘구스타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 그중 예술사에서 유명한 두 명의 구스타프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1860~1911)와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다. 여성 편력으로도 유명했던 화가 클림트와 오로지 한 여성만 사랑했던 작곡가 말러. 말러의 부인인 알마가 클림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키스>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는 둘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사실 <키스>의 주인공으로 회자하는 여자들이 몇 명 더 있다. 재미있는 건 모두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글. 조현영[클래식 칼럼니스트, 피아니스트]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Adagio



영화 <헤어질 결심>에  
흐르는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Adagio



영화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에  
흐르는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Adagio

## 그림처럼 화려한 삶을 산, 구스타프 클림트

구스타프 클림트를 제외하고선 19세기 말 유럽의 미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는 상징주의의 대표적 화가로 보통의 예술적 경계를 뛰어넘었으며, 금세공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황금색과 장식에 관심이 많았다. 클림트는 처음엔 장식 회화를 공부했지만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클림트만의 독자적인 예술양식을 발전시켰다. 그의 작품은 다른 어떤 화가와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데, 누가 봐도 이건 딱 클림트의 작품임을 알 수 있는 독특한 화풍이 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도 대단해서 자신과 스페인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0)만이 유일하게 위대한 화가로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클림트의 집안은 형편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클림트의 여동생인 안나가 1874년에 다섯 살의 나이로 세상을 뜬다. 그는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 것과 동생들의 죽음, 그리고 부모의 죽음 이후 생계를 책임졌다는 점에서 작곡가 말러와 공통점이 많다. 1883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동생 에른스트 클림트, 동료인 프란츠 마치와 함께 공방을 세우고, 이후 건축물 벽면의 회화 작품 등을 제작한다. 클림트는 동생 에른스트를 통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여인, 에밀리 플뢰게를 만나게 된다. 에밀리는 에른스트의 처제로, 클림트는 쉽게 말해 사돈처녀를 좋아했다. 에밀리는 클림트보다 키도 컸고, 상당히 지적이며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키스의 주인공으로 유력한 후보 중의 명이 바로 에밀리다.

클림트는 초기에는 사실적 화풍을 보이다가 초상화를 많이 그리게 되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인상주의와 아방가르드를 접하면서 보수적인 오스트리아 미술 협회에 반발심을 갖고, 1897년 빈 분리파(제체시온; Secession)를 결성하며 새로운 예술의 정점을 향해갔다. 분리파의 일원으로는 클림트 이외에도 에곤 실레(1890~1918), 오스카 코코슈카(1886~1980) 등의 작가들이 있다. 클림트는 빈 대학교 대강당의 천장화를 그리면서 문제가 생긴다. ‘철학’, ‘의학’, ‘법학’을 상징하는 건물의 그림들이었는데, 그만의 추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맹렬히 그의 능력을 비판한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이 그의 낮은 수준 때문이라고 했다는 사실 또한 놀랍다. 이 사건 이후로 클림트는 공공 작품은 의뢰를 받지 않고 자신만의 추상적인 양식을 고집한다.

평생 빈(Wien) 밖으로 움직이지 않던 그가 이탈리아 라벤나 지방에서 마주친 비잔틴 모자이크 양식은 향후 그의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 거기서 봤던 모자이크와 장식 패턴 그리





구스타프 클림트\_The Kiss (1907-08) oil on canvas

고 금을 사용한 기술을 그만의 독창적인 양식으로 발전시키며 〈키스\_1907~1908〉, 〈다나에\_1907~1908〉 등의 황금기 대표적인 작품을 탄생시킨다. 화려하고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55세에 스페인 감기로 인한 뇌경색으로 세상을 뜬다. 복잡한 사생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매우 꺼렸는데, 생애가 14명이나 된다는 것을 보니 상당한 여성 편력이다. 예술에 대한 집념만큼이나 여성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다. 희대의 역작

〈키스〉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당시 빈에서 알아주는 예술가 중 한 명인 알마 말러가 본인의 첫 키스 상대가 바로 클림트였다고 말한 것과 알마 역시 남성 편력이 상당했던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정이다.

### 해서는 안 될 사랑을 노래하는, 구스타프 말러

이제는 여성 편력이 강했던 구스타프가 아닌, 한 여자만을 사랑한 구스타프를 만나보자.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는 1860년 오스트리아의 영토인 보헤미아에서 태어나 1911년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빈의 그린칭 무덤에 묻혔다.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받은 부당함과 음악에 대한 실험 정신을 교향곡에 담았다. 말러는 음악의 모든 장르 중에서 교향곡을 가장 사랑했다. 그의 교향곡은 번호가 붙은 곡으로는 10개, 교향곡과 연가곡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지의 노래〉를 포함하면 11개로 말할 수 있다. 그중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은 바로 교향곡 5번이다.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교향곡이라는 장르에서 큰 업적을 남긴 말러는 아버지 베른하르트 말러와 어머니 마리 말러 사이에서 1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러나 큰형이 일찍 죽는 바람에 실제로는 다둥이 집안의 장남 역할을 맡아야 했다. 말러는 큰형뿐만 아니라 열네 명의 형제 중 여덟 명의 형제를 일찍 잃었다. 말러의 조울증과 강박신경증 등은 어린 시절의 불행했던 경험에서부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강압적이고 고집불통이었던 아버지와 병약하고 무능했던 어머니와 함께했던 삶은 행복하지 못했다.

“나는 삼중의 이방인이다. 오스트리아인 사이에서는 보헤미아인이요, 독일인 사이에서는 오스트리아인이며, 세계인 사이에서는 유대인이다”라는 고백처럼 말러는 출생부터 경계에서 있는 인물이었다.”

말러가 교향곡 5번의 작곡을 시작한 건 1901년인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던 그는 1902년 심각한 장 출혈을 겪고 난 후 이 곡을 완성한다. 말러는 19살 연하의 알마 쾨들러(1879-1964)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녀는 당시 오스트리아 사교계의 팜므 파탈 같은 여성이었다. 알마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교향곡 5번 제4악장을 그녀에게 헌정하고 결혼에 성공했다. 말러는 두 번에 걸쳐 개정 작업을 한 후, 1904년 본인의 지휘로 독일 쾰른에서 초연한다. 교향곡 5번은 전체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악장들을 묶어 1, 2, 3부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중 4악장은 이탈리아의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 〈베네치아의 죽음〉에 흘러서 이 곡을 영화음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비스콘티의 영화 속에서도 시한부를 선고받은 늙은 작가가 젊고 아름다운 소년 타지오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묘사할 때마다 말러의 아다지에도가 흘렀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도 말러의 음악이 흐른다. 사건의 수사를 맡은 형사 해준(박해일)이 피의자인 서래(탕웨이)에게 묘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 곡을 들을 수 있다. 두 영화 모두 ‘사랑과 죽음의 이중주’라는 말러 음악의 특징을 심분 사용했다. 엄청나게 말러를 좋아한다는 박찬욱 감독의 본심이 묻어나는 설정이다.

4악장은 사랑을 노래하는 슬픈 곡으로, 오롯이 현악기와 하프만으로 연주되는 악장이며 독특한 악기 구성 덕에 말러의 교향곡 중에 가장 듣기 감미로운 곡이다. 말러의 교향곡은 그 자신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세계나 다름없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교향곡 속에 담아내려는 듯 갖가지 악기들을 총동원해 신기한 소리를 만들어내곤 했다. 19세기와 20세기를 모두 경험한 작곡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쓰디쓴 밤으로 채웠을 말러는 예술에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던 벨 에포크 시대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영화\_베네치아에서의 죽음 (1971) 비스콘티



영화\_헤어질 결심 (2022) 박찬욱





## 가을엔 여기 단양팔경부터 외전까지

가을색을 좇아 떠난 단양 여행. 예정된 여행지에 앞서 구불구불한 산간 도로를 먼저 찾았다. 붉은 단풍이 차창을 스치는 보발재가 그곳이다. 보발재 고갯마루 전망대에선 무심코 스쳐 보낸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성큼 다가온 단양의 가을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글/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산수유람, 단양팔경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명승지가 있다. 그곳을 일컬어 ‘\*\*팔경, \*\*십경’이라 부른다. 이것의 원조는 어딜까? 두말할 것 없이 ‘단양팔경’일 테다. 그 이름을 붙인 이는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1502~1570) 선생이다. 그는 본처와 둘째 부인에 이어 둘째 아들의 죽음을 묵도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 무렵 관기였던 두향이 퇴계 선생에게 매화를 선물하며 위로했다. 그 매화는 두향의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것으로 혈육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시나브로 가까워졌고, 어느덧 사랑이 은은한 매화 향기처럼 깊어갔다. 그들은 단양의 빼어난 산수를 유람하며 시를 짓고 가야금을 연주했다. 퇴계는 그때 특별히 경치가 빼어난 여덟 곳을 ‘단양팔경’이라 불렀다.

단양팔경 중 으뜸은 도담삼봉이다. 삼봉이란 단양강 한가운데 봉긋 솟은 세 봉우리다. 가운데 장군봉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첩봉, 왼쪽에 처봉이 있다. 첩봉은 장군봉을 향해 기댄 듯하고, 처봉은 그 모습을 시샘하듯 등을 돌린 모습이다. 이 흥미롭고도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이가 그 유명한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1342~1398)이다. 고려 말 정계에 입문한 그는 도담삼봉의 멋에 취해 자신의 호를 ‘삼봉(三峯)’이라 지었다 전한다. 이곳에 정도전의 동상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제2경은 도담삼봉 인근에 있는 구름다리 모양의 석문이다. 과학자들은 석문의 조성 배경을 두고 석회동굴이 무너진 뒤 동굴 천장 일부가 남은 것으로 추측한다. 단양팔경이 도담삼봉과 석문뿐이 아니다. 충주호 제일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제3경 구담봉과 제4경 옥순봉, 그리고 선암계곡을 따라 이어진 제5경 사인암, 제6경 하선암, 제7경 중선암, 제8경 상선암이 꼬리를 물고 경치를 뽐낸다.



“ 단양팔경중 으뜸은도담삼봉이다. 단양강한가운데 봉긋 솟은 세 봉우리로 가운데 장군봉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첩봉, 왼쪽에 처봉이 있다. ”

1. 정도전이 반한 단양강의 도담삼봉.
2. 단양 여행을 시작한 보발재.
3.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본 단양강.





그중 단풍철을 맞아 제5경 사인암은 놓치기 아깝다. 높이 170m에 이르는 사인암은 한눈에 봐도 시선을 압도한다. 특히 먹물 빛이 감도는 암벽 위에 녹색, 적색, 황색이 어우러져 신비감을 더한다. 사인암의 인기는 실로 놀랍다. 석벽 곳곳에 옛 시인 묵객들이 남긴 시문과 서명이 빼곡하니 ‘금석문 각자의 보고’라 할만하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김홍도가 그림을 그리러 왔다가 사인암을 보고 ‘자신보다 뛰어난 화가의 놀라운 솜씨’라며 차마 붓을 들지 못했다고 한다.

## 단양팔경에도 외전이 생겼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다. 단양팔경도 시대에 따라 외전(外傳)이 생겼다. 그 으뜸은 단양강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놓인 이른바 ‘잔도길’이다. 공식 명칭은 ‘느림보 강물길’이다. 단양역에서 출발하면 산진대교를 건너 왼편에 잔도길 진입로가 보인다. 강물 위 깎아지른 절벽 20m 정도 위치에 보행 길이 설치되어 있어 아찔함과 절경에 감탄하는 두 마음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공존한다. 잔잔한 수면에 물그림자를 드리운 잔도의 모습은 이국적일 만큼 생경한 절경을 선사한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 위로 기암괴석의 물그림자가 춤추듯 일렁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잔도 끝자락에 이르면 만천하 스카이워크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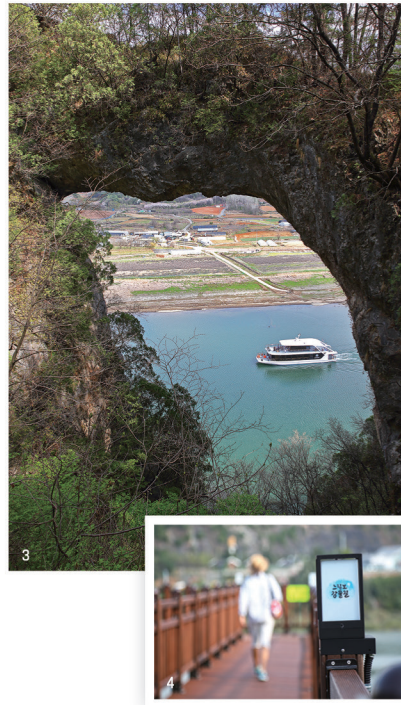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단양강 수면에서 80~90m 지점에 25m 높이로 세워진 전망대인데 여기서 보는 풍광이 압도적이다. 파배기처럼 배배 꼬여 하늘로 솟구친 전망대를 향해 한발 한발 오르면 허공을 향해 돌출한 전망대가 보인다. 전망대 바닥은 천 길 낭떠러지가 고스란히 보이도록 투명 강화 유리를 설치해 놓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늘을 걷는 기분에 발끝에서부터 짜릿한 전율이 올라온다. 싫지만 미워할 수 없고, 두렵지만 외면할 수 없다. 힘들게 산을 오르지 않았지만, 산 정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장쾌한 풍경에 해묵은 스트레스까지 말끔히 씻겨나간다. 발아래 반짝이는 단양강과 아득한 소백산까지 조망하고 나면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만족감으로 벅차오른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외전’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았을 터. 만천하 스카이워크 아래에 짚



와이어가 기다리고 있다. 과거 호주와 뉴질랜드 개척기에 음식물이나 우편물 등을 전달하려고 설치했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스릴을 맛보는 익스트림 레포츠로 자리 잡았다. 짚와이어는 산기슭을 따라 980m 구간을 최고 속도 약 80km로 하강한다. 1분 남짓한 시간이지만 그 짜릿함은 기나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 단양을 한눈에 담다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단순한 호기심이 발동한다면 해발 520m에 자리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찾아보자. 하늘과 맞닿은 듯한 탁 트인 공터에 위치한 두산활공장. 그 끝단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단양강이 성곽의 해자처럼 읍내를 에두른 모습에 감탄하고, 준봉들이 또 단양강을 에워싼 모습에 경탄한다. 한참 풍경에 취해 있을 무렵 ‘뛰어! 뛰어! 뛰어!’ 하는 외마디 구령에 귀가 쫑긋한다. 이륙 준비를 끝낸 패러글라이더가 달팽이처럼 등짐을 짊어지고 젓 먹던 힘을 다해 뒤편발을 이어간다. 활공장 끝자락에 이르자 등 뒤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교관이 소리친다. ‘점프’ 그 목소리는 칼날보다 예리하고 비수보다 날카로워 컷볼을 찢을 듯하다. 이어지는 외마디 비명. ‘으~악!’ 패러글라이더가 하늘을 날아간 이후 활공장엔 다시 평온이 깃든다. 패러글라이딩 활공 시간은 보통 15분 안팎이다. 숙련된 교관이 등 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작해 주기 때문에 체험자는 그냥 믿고 맡기면 된다. 적잖은 비용이라 부담스럽지만, 평생에 한 번은 체험해볼 만하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멋진 풍경에 간간이 들려오는 비명(?)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추억이 오늘을 멋지게 살아낸 대가로 받는 선물이라면, 단양에서의 여행은 추억을 선물 받기에, 충분한 곳이다.



1. 단양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2. 짚와이어는 산기슭을 따라 하강한다.
3. 석문에서 바라보면 액자 속 풍경이 된다.
4. 잔도길의 공식명칭은 느림보 강물길이다.
5. 시원하게 하늘을 나는 패러글라이딩.
6. 가을빛으로 물든 단양강의 잔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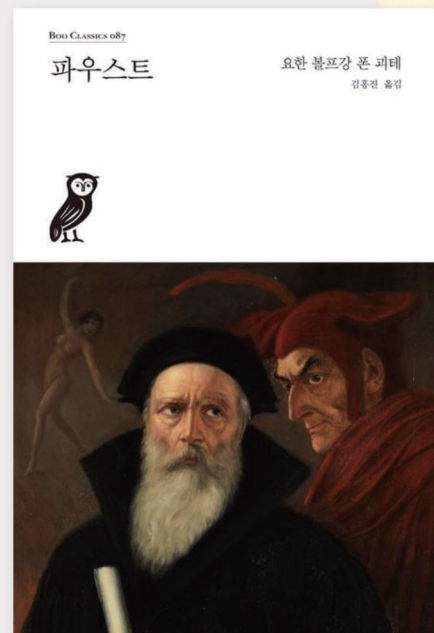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룬 삶은 진짜가 아니다. 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삶이 진짜고, 또 아름답다.

글·임성훈 [고전독서가]

## 「 파우스트 」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 누구나 유혹에 흔들린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24세에 집필을 시작해 거의 60년이 지난 82세에 완성했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욕망 때문에 ‘악마와의 거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간을 그렸다. 『파우스트』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주인공 파우스트가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고, 그레트헨이라는 소녀를 타락시키는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다. 2부는 파우스트가 황제를 도와 권력과 그리스 신화 속 미녀 헬레나를 얻었다가, 타인을 위한 선행과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주요 줄거리다.

“파우스트가 지상에 사는 동안 네가 무슨 유혹을 하든 말리지 않겠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까. 그를 자극하고 일깨우도록 악마의 역할을 다하거라.”

신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지상의 노력하는 인간 파우스트를 유혹하는 것을 허락한다. 신은 인간의 선행을 믿고, 방황하더라도 끝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악마는 신의 가설을 시험한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뛰어난 학자이지만, 세상의 본질을 모두 밝혀내기에는 학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는 마법의 힘을 빌리려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자, 죽음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때 우연히 울려 퍼지는 부활절 종소리에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갈망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난다.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쾌락의 삶을 주기로 한다. 파우스트는 자기가 욕망에 빠져 더 이상의 노력을 멈추고, 순간의 쾌락

에 만족한다며 악마의 종이 될 것을 약속한다. 그는 마녀의 영약을 마시고 20대의 청년이 되어 방탕한 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순진한 그레트헨을 사랑하게 되는데 악마는 파우스트가 그레트헨의 오빠를 죽이게 한다. 그리고 그레트헨이 어머니를 죽이도록 만든다. 그레트헨은 죄책감에 정신이 나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파우스트는 그녀를 탈출시키려 애쓴다.

“구결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게다가 양심의 가책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탈옥을 권하는 파우스트에게 그레트헨은 짓밟을 치르겠다고 하며 남는다. 이때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녀를 두고 나오며 ‘심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천상에서는 ‘구원받았다’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레트헨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고 고귀한 정신, 속죄를 상징하는데,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파우스트를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진짜다

2부에서 파우스트는 파산 직전에 이른 황제를 도와 신임을 얻는다. 황제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미인 헬레나를 불러내라고 요구하고, 파우스트는 경솔하게 승낙한다. 파우스트는 헬레나와 결혼하여 아들 오이포리온을 얻지만, 오이포리온은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처럼 하늘을 날려다 떨어져 죽어 버리고, 헬레나의 환영도 사라진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또 다른 쾌락을 주려 하지만, 파우스트는 거절한다. 그의 욕망은 초기에 육체적인 것에서 점차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된다. 파우스트는 악마의 노예가 될 것을 알면서도 결국 최고의 순간을 붙잡으려 한다. 악마는 하찮고 허망한 순간을 잡으려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빼앗으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레트헨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파우스트의 영혼이 승천하게 된 것이다. 파우스트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삶의 최고 형태를 추구하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욕망을 가진 인간이다.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건강한 욕망이다. 욕망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인간은 방황할 수도 있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 얻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파우스트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은 것에서 위안을 얻는다. 『파우스트』에서 신은 흔들리더라도 항상 노력하면서 스스로 애쓰는 사람을 구원한다. 파우스트는 자유를 지향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노력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다. 욕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에게 의존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담보로 의존한 것처럼 자기를 믿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욕망해도 괜찮다. 방황해도 좋다. 흔들려도 된다. 단, 자기 힘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



정원을 집 안으로

## 그라스류 키우기

풀, 잔디라는 뜻의 그라스. 요즘 정원 트렌드로 많이 심는다. 우리 집에 정원은 없어도 특별한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해 줄 그라스류 키우는 법을 소개한다.

글. 김효정 사진. 김지원

###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라스류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라스류는 억새와 갈대다. 가을이면 드넓은 들판에서 바람에 몸을 맡겨 하늘거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초다. 이와 함께 분홍색 깃털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는 핑크몰리도 그라스의 한 종류다.

그라스류는 다른 식물에 비해 병충해도 적고, 키우는 난이도도 높지 않아 식물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화려한 꽃이 피거나, 다양한 형태의 큰 잎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이 요즘 트렌드인 미니멀리즘과도 맞닿아 있다. 대체로 추위에 강해서 월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 번 물을 주는 것도 무방할 정도로 물을 좋아한다. 햇빛을 필요로 하지만, 직사광선을 받으면 잎이 탈 수 있어 반양지나 반음지에서 키우는 것이 적당하다.

### 새순을 위해서 변색한 잎 자르기

집에서 키우기 좋은 그라스·초본류로는 홍피, 흰은사초, 꽃장포 등이 있다. 홍피는 키가 30~80cm까지 자라며, 너비는 1cm 정도로 잎끝이 뾰족하다. 봄부터 잎끝이 붉게 물드는데, 가을이 되면 잎 전체가 붉어진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빨간색이 선명해진다. 흰은사초는 무늬은사초로도 불리는데, 20cm까지 키가 크는 식물이다. 은빛을 띠는 은사초와는 다르게 잎에 무늬가 있는데, 잎끝까지 뻗어 멋스러운 느낌을 준다. 변색한 잎은 바로 잘라서 정리해 주는 것이 병충해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기 좋다. 특히 겨울에는 잎이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새순이 나오는 봄 전에 묵은 잎을 잘라주는 것도 중요하다.

초본류에 속하는 꽃장포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한라산, 북부지방, 일본에 분포하고 있다. 키가 14~30cm까지 자라고, 잎은 좌우로 편평하고 굽은 선형이다. 잎 끝이 뾰족하고 아래쪽이 안쪽의 잎을 마주 앉아 두 줄로 배열이 된다. 7~8월에 백색의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라 주는 것이 좋다.



서간 유상경 대표 *Advice*

**Q. 그라스류의 물주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세요.**

**A.**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되는데, 보통 그라스류를 집 안에서 키울 때는 작은 화분을 주로 사용하고 합니다. 그럴 때는 물이 금방 마를 수 있어서 자주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Q. 흙은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배수가 잘되는 흙이 좋습니다. 흙은 마사토와 적옥토를 섞어서 사용하고, 배수성과 통기성을 위해서 화분 하단에 난석을 넣어 배수층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Q. 수형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풀 종류는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되어 색깔이 변색한 잎은 제거해 줘야 하고요. 한쪽만 햇빛이 가지 않게 자주 방향을 돌려주면, 골고루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특히 팔방으로 잎이 뻗어 나가는 식물의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면 수형이 망가지기 때문에 잎이 제 방향으로 뻗어갈 수 있게 잎을 고정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마음만은 넉넉하게, 풍요

일러스트, 나요



## 엄마의 덧밭

권경주 [전북 익산시]

봄부터 가을까지 엄마의 텃밭은 구순 가까운 나이가 무색하게 늘 푸르르다. 강낭콩을 땀다고 밥에 넣어 먹으라는 전화가 빗발치더니 어느새 고구마순이 실하다고 말씀하신다. 엄마의 일상을 공유하고 속에 있는 말들을 들어주고자 저녁밥을 지으며 늘 전화를 한다.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하던 전화가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일이 하나의 일과가 되었다. 전화기 너머 노치원에서 간식으로 무엇을 먹었다는 이야기부터 며칠 계속해서 내린 비로 고구마순이 잘 자라 껍질을 벗겨 놓았다는 이야기까지. 평생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표본인 엄마의 텃밭은 잡초 하나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늘 정갈하고 다섯 남매에게 푸성귀를 주느라 철 따라 무성하다. 텃밭 가에 자라는 쑥을 캐 주셔서 향긋한 쑥국으로 봄을 열면 머위 어린 잎으로 씹싸름하게 머위나물을 무쳐 먹고, 머위대를 삶아 새우 넣고 머위탕을 만들어 먹으며 봄을 보낸다. 장맛비가 계속되는 요즘에는 깻모를 옮겨 심느라 엄마의 손길이 더 바쁘다. 누런 황토에 초록의 어린 깻모가 줄지어 질서 정연하게 심겨 있는 밭을 보며 설치미술 작품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해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다짐과 함께 연례행사로 김장도 가족들이 모여 함께 한다. 물론 힘도 들고 따라주지 않는 몸에 불평이 터져 나오지만, 맛깔난 김치를 1년을 두고 먹을 수 있다는 넉넉함에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주말에 친정에 가면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며 나를 데리고 텃밭에 간다. 함께 둘러보며 거름을 넉넉히 주었다고도 하고, 가뭄에 물 주느라 힘들었다고도 한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 가득 머금고 뿌듯한 얼굴로 하시는 설명을 듣다 보면 텃밭에 채소들이 엄마의 또 다른 자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노치원 가기 전후 틈나는 대로 돌보시며 거두어 다섯 남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엄마의 지칠 줄 모르는 자식 사랑. 언젠가는 이런 행복한 시간이 끝날 줄을 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시간을 붙들고 두고 싶은 마음이 나의 지나친 욕심일까.

내 책상 위에는 나무 종지가 놓여있다. 종지에는 시골 산에서 주워온 도토리리와 밤이 담겨있다. 다가오는 주말에 시댁에 가서 밤과 도토리를 줍고 싶다. 도토리와 말린 밤을 보고 있으면 아이를 낳고 시댁에서 살던 때가 생각난다. 밤송이에 찢려가며 알밤을 하나둘, 주워 모았던 기억도 난다.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고 시댁에서 일 년쯤 살았다. 그 마을은 뒷산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많았다. 늦가을이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밤과도토리를 주우러 다녔다. 간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싶으면 도토리들이 길가에 굴러떨어져 도토리 줍는 재미가 쏠쏠했다. 아침 일찍부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 도토리를 주웠다. 큰 애가 돌을 막 지나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였다. ‘또르르, 또르르’ 도토리 굴러가는 대로 엉성하게 달려가는 큰 애 뒤를 쫓으며 도토리를 줍느라 눈과 손이 바빴다. 큰 애는 고사리손에 도토리를 주워 와서 내 손에 건넸다. 봉지가 가득 도토리를 주워 가면 어머니는 밤새 도토리를 물에 담가 쓴맛을 빼고 도토리묵을 썬 주었다. 밥상에 탕글탱글 맛있는 도토리묵무침이 오르면 젓가락이 바빠졌다. 가끔 아이들을 낮잠 재우고 뒷산에 가서 밤을 주웠다. 밤에 보채는 아이들은 낮잠을 한, 두 시간 달게 잤다. 주워 온 밤을 칼로 다듬어 불린 쌀 위에 얹어 밥을 지었다. 하얀밥 위에 노란 밤이 살캉살캉 씹혀 밥맛이 좋았다. 모유 수유를 할 때라 밤밥을 먹고 내 젖을 먹은 둘째는 얼굴에 토실토실 살이 올랐다.

시골에 살 땐 대문만 열고 나가면 마음이 늘 부자였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논과 집마다 발갈게 익어가는 홍시, 뒷산 상수리나무, 은행나무, 밤나무에 익어가는 열매만 보아도 배가 그득하게 불러왔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도토리묵을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서 이웃집 필리핀 새댁이 찾아와 도토리묵쑈는 법을 배워간 적도 있었다. 도시로 나와 살게 된 요즘은 마음이 가난하다. 시장에 널린 게 묵이고 밤이지만 사 먹어보면 시골 살 때의 그 맛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찰밥과 도토리묵을 만들어주던 어머니도 아흔 고개를 넘었다. 어제 아파트 앞, 노점에서 도토리묵 가루를 파는 할머니를 만났다. 반가운 맘에 묵 가루를 한 봉지 샀다. 어머니 손맛은 아니지만 도토리묵을 잘 썰어서 주말에 시골 어머니를 뵈고 와야겠다.

## 도토리묵의 추억

장영숙 [광주시 동구]





## 소달구지 여행

한현옥 [서울 강남구]

다라니 마을로 행하는 소달구지 안에 고만고만한 친구들과 앉아 있었다. 여섯 살에서 아홉 살가량의 단발머리 여자아이들과 상고머리, 까까중머리의 사내아이들 여섯 명이 올라타 앉았다. 가을이면 소가 끄는 달구지를 타고 가일이라는 동네로, 다라니라는 동네로 긴 여행을 떠나곤 했다. 웃고름 대신 단추를 단 저고리에 고무줄 허리로 만든 검정치마를 입고 고무신을 신은 병숙이란 친구도 달구지에 같이 탔었다. 병숙이는 샘마을에 토박이로 살던 친구가 아니었다. 키가 크고 피부가 검은 아버지와 역시 키 크고 젊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 마을로 들어온 외지인이었다. 그때는 외지인이 우리 마을에 한 집 두 집 들어와 세를 들어 살았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서울서 무슨 일을 하다가 망해서 왔다는 소문이 있었다. 병숙이와 소달구지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갔던 것 같다. 가다 보면 들녘이 황금빛 벼로 일렁이었고, 논 중간중간에는 키가 큰 미루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다라니란 마을에 옆집 개구쟁이 칠형제의 외가가 있었다. 내 어린 기억에는 지붕의 처마가 길어서 안마당이 어두컴컴하고 깊숙한 듯 보였다. 초가지붕의 시골집이었지만 꽤 크고 넓은 집이었다. 주춤주춤 들어가면 옆집 개구쟁이들의 외삼촌과 외숙모는 밭에서 딴 채소들을 주었고, 할머니는 우리에게 시루떡, 인절미 등을 주곤 했었다. 어린 우리들은 늘 즐거웠고 밤이면 뒷산 앞산 산소에 가서 황금빛 잔디 위에 뒹굴며 놀았다. 나무로 총을 만들어 편을 갈라 놀이를 했고, 큰 상수리나무 뒤나 산소 뒤에 숨고 별이 뜨고 달이 뜰 때까지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병숙이가 떠났다. 작은 트럭에 보따리 몇 개를 얹고 부모와 함께 병숙이가 올라탔다. 비쭉 비쭉한 단발머리를 바람에 흩날리며 병숙이가 손을 흔들었다. 우리 동네에 가끔 살러 들어오는 외지인에게 여러 개의 방 중 한 개를 빌려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농사일을 거들게 하여 생계를 이어가게도 해주었다. 낫선 이가 열린 사립문으로 들어와 마루 끝에 앉아 밥 좀 달라면 서슴없이 표주박에 밥을 퍼서 있는 반찬과 물 한 대접을 주곤 했다. 그때는 어느 집이나 낫선 방랑객, 걸인을 소박하게나마 먹여 보냈다. 그렇게 정이 많고 인심이 넉넉한 동네에 살며 병숙이를 가끔 떠올렸다. 언제 또 볼썩 나 타날 것 같아서였다.

## 풍요 속의 빈곤

김마옥 [대구시 동구]



아이가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가면서 엄마들 모임에 자주 나갔다. 그곳에서 만난 엄마들과 잘 지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고 싶었고, 늘 혼자 집에서 머물던 나에게도 친구가 필요했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조금 손해 보는 것 정도는 새로 생길 친구에 대한 배려라고 여기니 속상한 마음도 흐려졌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의 호의가 호구로 변해 버리는 것을 느꼈다. 몇몇 엄마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부탁했다. 한두 번은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 아이들과도 잘 지내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횡수가 늘어날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함께 어울리고 싶은 나의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맡기고 여유를 즐기는 엄마들의 모습이 떠올라 신경질이 나기도 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주위에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허전했다. 풍요 속의 빈곤처럼. 아이들을 부탁하는 엄마들의 말을 여러 번 거절했다. 나의 쓸모가 그들에게 사라진 걸까.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이들을 맡기는 일도, 모임에 초대하는 일도 조금씩 사라졌다. 잘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엄마들을 만나러 가는 마음은 늘 풍요로움을 기대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마음이 가난해져 돌아왔다. 영어를 술술 말하는 아이의 재능, 남편이 선물로 준 명품 가방, 해외로 떠나는 여름휴가 등 엄마들에게 흘러나오는 말들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엄마들과 어울릴 때마다 감정 소비가 심해졌고 마음도 몸도 지쳐 버렸다. 조용히 모임을 나왔다. 혼자인 게 편한 시간을 지나왔다. 가끔은 외롭지만, 감정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니 좋았다. 처음이 힘들지 혼자인 삶도 익숙해졌다. 둘이, 셋이서 함께 운동하는 엄마들을 볼 때면 마음이 덜컥하다가도 이내 제자리를 찾는다. 내가 선택한 행복이기에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 거니깐. 길가에 핀 풀꽃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있듯이. 잘 사는 인생에 정답은 없다. “오늘도 그럭저럭 잘 보냈어.” 말할 수 있는 하루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난한 마음보다는 풍요로운 마음이 좋다. 마음이 평온하게 최고다.

다음호 <일상의 향기> 주제는 '정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정리하는 일상을 보냅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옷을 정리하고, 사람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만큼이나 정리가 필요한가요? '정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분량: 200자 원고지 4~5매 (원고 접수 시 주소와 연락처 기재 必) 마감: 9월 30일 문의전화: 02-511-7053 이메일: essayds@naver.com  
우편: (우) 0653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 채택되신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접수하신 원고는 반환되지 않으며 중복, 표절로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Recipe\_01

### 무 고로케



#### 재 료 | INGREDIENTS\_6~8개분량

무 1/2개, 새우살 1/2컵, 양파 1/2개, 대파 1/3개, 당근 1/4개,  
전분 2큰술,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밀가루 1/2컵, 달걀 1개, 빵가루 1컵,  
튀김용 식용유 넉넉히

#### 만드는 법 | DIRECTIONS

1. 양파, 대파, 당근은 잘게 다진 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는다.
2. 새우는 껍데 다지고, 무는 깍둑썰어 믹서기로 곱게 간 다음, 면보자기에 넣어 물기를 짜낸다.
3. 볼에 ①과 ②의 재료와 전분,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고루 섞는다.
4. 먹기 좋은 크기로 반죽을 뭉치고, 밀가루 → 달걀 → 빵가루 순으로 묻힌다.
5. 약 170도로 예열된 기름에 ④를 넣고 앞뒤로 노릇해질 때까지 튀긴다.
6. 마요네즈를 곁들여도 좋다.



## Recipe\_02

### 가을 밤 카페라떼



#### 재 료 | INGREDIENTS\_라떼 1잔기준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 2봉, 밤 스프레드 2큰술, 뜨거운 물 3큰술,  
따뜻한 우유 2/3컵, 토핑용 밤 조각 약간

#### 만드는 법 | DIRECTIONS

1. 컵에 맥심 화이트골드, 밤 스프레드, 뜨거운 물을 넣고 녹인다.
2. 우유를 따뜻하게 데운다.
3. 따뜻한 우유에 우유 거품기로 거품을 만들고 ①의 잔에 모두 부어준다.
4. 우유거품 위에 밤 조각을 올려 마무리한다.



##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 업무협약(MOU) 체결

동서식품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와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1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커피 캡슐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동서식품은 커피 캡슐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용품을 제작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커피 캡슐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환경부는 커피 캡슐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통 등 우체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적인 커피 캡슐 회수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1월부터 카누 알루미늄 캡슐 재활용 프로그램인 ‘카누와 함께 그린(GREEN) 내일’을 운영하고 있다. 카누 캡슐 커피를 마시고 남은 알루미늄 캡슐을 수거한 후 알루미늄과 커피박(커피 찌꺼기)으로 분리해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온라인 신청을 통한 수거만 가능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우체국 물류를 통한 오프라인 수거도 가능해진다.

카누 바리스타 캡슐을 음용한 소비자가 사용한 캡슐을 전용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재활용 처리장으로 회수되는 방식이다. 동서식품 박영순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커피 캡슐 재활용 프로그램 ‘카누와 함께 그린(GREEN) 내일’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 나기 지원 이웃돕기성금 1억원 기부

동서식품은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여름철 폭우와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기탁한 성금은 하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부와 함께 동서식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업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의 500번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나눔명문기업’은 꾸준한 지역사회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동서식품은 “취약계층 이웃들이 함께 올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성금을 기탁

하게 되었다”며 “더불어 이번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맥심 사랑나눔 이벤트’ 진행

동서식품은 지난 8월 7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맥심 사랑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맥심 사랑나눔 이벤트는 동서식품이 지난 2009년부터 전개해 온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커피 브랜드 ‘맥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그녀들의 커피 이야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맥심 사랑나눔 이벤트는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동서식품은 복지관을 통해 관내의 홀몸 어르신들께 커피와 차류 제품 등을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커뮤니티 회원은 “주위 어려운 이웃에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복지관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서식품 오은정 마케팅 매니저는 “맥심 사랑나눔 이벤트는 매년 맥심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같이 해오고 있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소

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맥심플랜트에서 함께하는 향기로운 만남’ 2024 독자 초청 이벤트 진행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에서 2024년 10월 11일 (금) 독자 초청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독자 이벤트에서는 동서식품 브랜드체험사업팀의 커피 아카데미 강연과 커피 시음을 진행합니다. 본 행사의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12명을 선정해 10월 2일 이후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측 행사 안내 내용을 참고해주시시오.

2024 독자 초청 이벤트



### 행사 안내

|       |                                                        |
|-------|--------------------------------------------------------|
| 행사 일정 | 10월 11일(금) 오후 2시~4시                                    |
| 행사 장소 | 서울 한남동 맥심플랜트 B2                                        |
| 신청 기간 | 9월 1일~9월 30일                                           |
| 신청 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br>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이름, 주소, 연락처<br>필수 기재하여 신청 |
| 우 편   |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br>402호 편집실 (06530)                |
| 이 메 일 | samhyang@naver.com                                     |

|        |                    |
|--------|--------------------|
| 모집 인원  | 12명(동반 불가)         |
| 당첨자 발표 | 10월 2일 이후 개별 연락 예정 |



About the Book  
01

아름다운 가을에는 책과 연애하세요.  
〈삶의 향기〉와 함께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합니다.



『말의 품격』 - 이기주

경청·공감·반응·뒷말 등 24개의 키워드를 통해 말과 사람, 그리고 품격에 관한 생각을 작가의 언어로 풀어낸다. '마음의 소리'인 말은 곧 마음을 담아낸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나며, 귀소 본능이 있는 인간의 말은 돌고 돌아 어느새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책을 읽으며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말에서 큰 울림을 받았다. 『말의 품격』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대해 끝없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책은 두껍지 않고, 내용도 많지 않지만 내 말과 사람들의 말씨에 귀 기울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 넘쳐난다. 날로 각박해지는 이시대에 모두가 귀 기울여 새겨들어야 할 귀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또한 저자의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따뜻한 감성이 더해져 평소 하지 못했던 폭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김은경\_대구시 달서구



『친애하는 동무들』 - 노은희

소설은 탈북민의 신앙 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다. 민족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탈북으로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욕망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들의 서사이다. 중국을 포함한 남/북의 경계 넘나들기는 소설의 주요 모티브인데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서 재미있게 읽었다. 이 책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바람직한 기회가 되었다. 탈북의 이유가 물질적인 충족이 그치지 않고 믿음의 테두리에서 안팎의 문제를 엮어 영혼의 구원에 집중한 훌륭한 작품이다. 소설 속에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과 가상의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를 단순한 소설적 이야기거리로만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책을 읽으며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할 수 있었다. 남과 북에 서로 화합하는 날이 속히 찾아오길 바라며, 소설 속 인물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다. 부디 안녕하시길.

오명희\_경기도 남양주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11, 12월호는 도서 추천 코너가 쉬어갑니다.  
도서 추천 코너를 대신해 독자 이벤트 후기가 게재됩니다.

Pretty Postcard  
02

아날로그의 감성 그 진심을 담다  
독자여러분의 정성으로 가득찬 예쁜엽서를 소개합니다



\* 예쁜 엽서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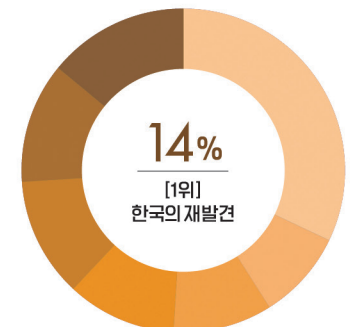
권혜란\_서울 성북구  
정명순\_경기 부천시  
천선녀\_인천 계양구  
최지윤\_경북 김천시  
함영화\_경기 고양시

Preference Column  
03

선호도 칼럼 조사  
7·8월호 독자 여러분의 선택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총 412건(8월 5일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칼럼으로 '한국의 재발견'과 '차한잔의 향기', '울댓커피', '도시를 걷다', '길 위의 시간', '우리집 식물원'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              |     |
|--------------|-----|--------------|-----|
| [1위] 한국의 재발견 | 14% | [4위] 도시를 걷다  | 11% |
| [2위] 차한잔의 향기 | 12% | [5위] 길 위의 시간 | 10% |
| 울댓 커피        | 12% | [6위] 우리집 식물원 | 9%  |
|              |     | 기타           | 32% |





## # 게시판

### 독자의견



#### 한국의 재발견

잊혀져 가는 우리들의 세시풍속을 소개해주어 좋았고, 칠월칠석에 비오기를 학수고대했던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 흐뭇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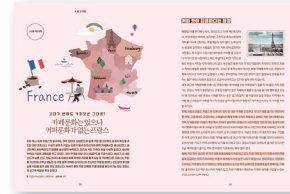
이종석\_부산 서구



#### 차 한 잔의 향기

'인간시장'을 쓰게 된 배경을 읽고 향기나는 소설 쓰기의 역기스와 향기나는 삶은 창작 활동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명선\_광주 서구



#### 올댓 커피

프랑스도 유럽인데 이탈리아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경한 문화를 알게 됐고, 그 문화를 유지할지 변화에 성공할 지 궁금하게 하는 칼럼이었어요.

박민혜\_경기 오산



#### 도시를 걷다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던 차에 태안 곳곳을 다녀온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기지포 해변을 꼭 걸어 봐야겠어요.

김선미\_경기 부천시



#### 길 위의 시간

배낭 하나 가볍게 짊어지고 바간의 탐에 올라 아름다운 일출도 보고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고 온듯한 기분이 드네요.

전미경\_인천 남동구



#### 우리집 식물원

키우는 화분에 하얀 곰팡이가 생겨 의문이었는데 과습과 밀폐된 실내 환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식물도 사람도 시원한 바람 속에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야겠어요.

강나영\_인천 동구

### 독자퀴즈

금세공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황금색과 장식에 관심이 많았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인상주의와 아방가르드를 접하면서 보수적인 오스트리아 미술 협회에 반발심을 갖고, 1897년 빈 분리파를 결성한 화가는 누구인가?

★ 28쪽을 참고해 독자엽서로 응모하세요.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 전화번호를 적지 않으면 배송 문제로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엽서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표기하지 않으면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정답

바가산

- 7·8월호 정답자는 371명입니다. -

###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상품은 9월 중 배송됩니다

강영희 서울 동작구  
고선해 경기 일산시  
김경자 경기 의정부시  
김다영 광주 동구  
김명금 경기 오산시  
김서현 대구 달성군  
김성선 경북 고령군  
김영화 서울 영등포구  
김은영 경기 김포시  
김재현 경기 수원시

김정순 경북 경주시  
김정자 서울 양천구  
김창석 전남 여주시  
김창현 서울 광진구  
노춘희 서울 도봉구  
박덕익 전남 나주시  
박만섭 서울 성동구  
박문원 경기 광주시  
박선희 부산 부산진구  
박성만 서울 양천구

박재섭 경기 하남시  
박정근 서울 구로구  
성보경 서울 서대문구  
송경희 경기 성남시  
송대호 전남 장성군  
신경림 경북 영천시  
안광현 인천 연수구  
안신숙 경기 남양주시  
안준미 광주 서구  
오미경 대전 대덕구

오하연 부산 해운대구  
윤가을 광주 동구  
이복자 부산 강서구  
이수연 경북 예천군  
이승혜 경기 고양시  
이애란 서울 중랑구  
이영주 경기 수원시  
이은정 경기 평택시  
이정기 경기 광주시  
이종숙 경남 김해시

이현정 광주 남구  
장승길 광주 북구  
전옥자 경기 안양시  
전정하 경기 하남시  
정인숙 인천 서구  
차혜빈 경기 군포시  
최윤형 광주 서구  
최익희 충남 당진시  
최혜숙 서울 구로구  
한옥순 경기 동두천시

2024 GIFT SET

# 추석 동서선물세트

MaXim.



1BOX  
4SET

### 맥심 모카골드 21호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12g x 210개

KANU.



1BOX  
4SET

### 카누 아메리카노 8호

카누 마일드 로스트 아메리카노 9g x 6개 / 카누 다크 로스트 아메리카노 9g x 2개 / 카누 라이트 로스트 아메리카노 9g x 2개 / 카누 투게더미그 x 2개



1BOX  
4SET

### 카누 블렌드 7호

카누 더블샷 라떼 135g x 1개 / 카누 라떼 135g x 1개 / 카누 에스프레소 말차 라떼 138.4g x 1개 / 카누 바닐라 라떼 138.4g x 1개 / 카누 마일드 로스트 아메리카노 9g x 2개

동서식품

※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쫄하게 부드럽게

라떼처럼 즐겨봐



Maxim.  
**SUPREME  
GOLD**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는 동서식품에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는 사외보입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의 내용에 대하여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불가피하게 사외보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경로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 구독 신청 안내

당사의 사외보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을 원하는 분께서는 ①홈페이지 본인 인증 또는 ②독자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www.dongsuh.co.kr](http://www.dongsuh.co.kr) → 홍보센터 → 웹진 삶의 향기  
→ 신규 구독 신청의 순으로 신청하시면 신청한 다음 호부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독자 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2.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독종지요청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외보 발송 및 당첨자 경품 발송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당사는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 케이아트만(주), ㈜인스팟, 월드피에이디
2. 위탁 업무 내용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3. 동서식품(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홈페이지 및 엽서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문의사항】 사외보〈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편집실

Tel : 02-511-7053 / E-mail : [sarmhyang@naver.com](mailto:sarmhyang@naver.com) (수탁자 케이아트만(주)에서 진행합니다.)

· 이 름 : \_\_\_\_\_ · 전화번호 : \_\_\_\_\_

· 주 소 : \_\_\_\_\_

☐ 신규 ☐ 변경 ☐ 중지 ☐ 기존

## 독 / 자 / 의 / 견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칼럼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번 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퀴즈/정답

· 정 답 :

· 연락처 :



정답자 상품 배송을 위해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부담

발송유료기간  
2023.05.01 ~ 2025.04.30

서울시서울우체국  
제 41389호

받는 사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층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사람의  
향기

2024 \* No.48

September+October

항문원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www.dongsin.co.kr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는  
매스콜 향기의 시트로온 이슬입니다

© 폴 사냥 <일티트, 베이컨의 작은 향구>

